# 섬 최다 보유…미래 먹거리 전진기지

〈2천165개·전국 65%〉

**국가기념일 '섬의 날' 전남 개최 의미와 전망**

## 道, 블루이코노미 일환 '블루투어' 섬 중심

## 전남 섬 방문객 지난해 1천만명 육박 인기

한국은 3천300여개의 섬을 보유, 세계에서 네번째로 섬이 많은 나라다. 섬 관광객 추이는 2006년 400만명에서 2011년 534만명, 2016년에는 595만명으로 증가해 왔다

정부는 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1988년부터 10개년 계획인 '도서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섬 주민 정주여건의 개선과 소득·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 왔다. 또 섬의 개수·면적 등 기초현황조사를 통해 빅데이터를 구축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섬의 가치를 제고하며, 원격 진료나 드론 택배 등을 통해 섬 지역을 4차 산업혁명의 테스트베드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섬의 날은 영토로서의 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관광·생태·문화 자원의 보고(寶庫)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그 가치와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바꾸고 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섬의 날' 제정과 함께 2019년을 섬 발전 원년으로 삼고 발전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미 '도서개발 촉진법'에 의해 10년 단위로 중장기 사업계획을 마련, 1988년부터 2017년까지 3차에 걸쳐 3조 1천여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정부에서는 2018년에는 4차 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서 2027년까지 1천256개 사업, 1조5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섬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을 위해 '도서종합개발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섬 발전 추진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기념일인 '제1회 섬의 날 행사'를 전남에서 개최된 이유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것으로부터 기인된다. 과거 육상과 단절된 폐쇄·미개발의 이미지가 강했던 섬이 최근 관광 및 개발의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미래 개척의 '블루오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은 2천165개의 섬을 보유해 전국 65%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섬 보유지다. 국내 섬 전국 방문객이 지난 2012년 1천453만7천명에서 2018년 2천711만7천명으로 급증했다.

전남은 지난 2012년 818만2천명에서 2018년 984만1천명으로 1천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관광객 방문이 증가했다. 이만큼 전남 섬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 민선7기 전남도의 미래 먹거리를 양산할 수 있는 '블루오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블루이코노미' 프로젝트 중 세부 항목인 '블루투어' 정책에 섬을 중심에 두고 있다. 개발 및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으로 전남이 타 시도와의 비교우위에 서 있는 자연자원을 보유한 셈이다.

민선6기부터 시행해온 '가고 싶은 섬' 시책도 지난 2014년 27만명의 방문객에서 2018년 91만2천명으로 방문객 238% 증가세를 보였다. 도는 섬을 관광객 7천만명 시대 달성의 핵심으로 보고 관광자원 개발과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임채만 기자

# '대한민국 썸 페스티벌' 안전 최우선

## 道, 내일 행사 개최 앞서 지자체·기관 등 합동점검

전남도는 8일 제1회 섬의 날을 기념해 목포 삼학도 일원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썸 페스티벌'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목포시·신안군, 소방서, 경찰서, 전기·가스안전공사, 민간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6일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대한민국 썸 페스티벌'은 한여름에 바닷가에서 개최되는데다, 불꽃놀이 등으로 사고 위험성이 있다. 관람객도 3천여명 이상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합동점검반을 편성, 이날 행사장 시설장비, 소방·전기·가스설비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점검했다. 특히 케이팝(k-pop) 콘서트가 열리는 주무대와 어린이 물놀이장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문어발식 콘센트 등 가벼운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했다. 주무대 소화기(일반, 할론) 미배치 등 불안요인은 행사개최 전까지 보수 보강토록 해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등 안전한 축제 분위기 조성에 온힘을 쏟고 있다.

특히 행사장 안전관리책임자 실명을 공개해 안전을 책임 있게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누구나 안전하게 페스티벌을 즐기도록 행사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행사장 곳곳에 그늘막 쉼터와 생수 공급 등 폭염대책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재난대비 공사현장 안전점검**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북상중인 6일 오전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한 아파트 공사현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함께 타워크레인 등의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북구 제공

# 9월 순천 균형발전박람회 준비 순항

## 강소도시서 첫 개최…엠블럼·슬로건 공개

전남도는 6일 "오는 9월25일부터 3일간 순천만 국가정원 일대에서 펼쳐지는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의 엠블럼과 슬로건 등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는 2004년 첫 개최 이후 처음으로 대도시가 아닌 강소도시에서 개최된다.

엠블럼과 슬로건 공개는 지역특화자원인 순천만 국가정원을 적극 활용하는 등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는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의 순조로운 준비 상황을 알린 셈이다.

엠블럼은 자연과 사람, 도시와 지역이 어우러져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는 박람회를 형상화했다.

또한 붓터치로 전남의 풍요로운 강과 들녘을 형상화하고 희망의 이미지 속에 사람과 도시의 모습을 담아 엠블럼의 의미를 확대한 포스터도 함께 공개됐다.

슬로건은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 기반 구축으로 안정된 삶, 활기찬 공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지역혁신이 모여 국가의 균형발전을 모색하는 박람회를 표현해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실현되는 균형발전'으로 정했다.

이번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는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사례와 지역혁신을 통한 균형발전 비전을 공유하는 전시박람회, 정책 전문가들의 토론의 장인 정책박람회, 지역 혁신을 직접 실현하는 지역 혁신가들의 소통의 장인 국민참여박람회로 구성된다. /김재정 기자

# 광주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투자금 입금

## 다음주 주주협약·총회…설립 절차 마무리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을 설립할 투자금이 이번 주 내로 입금이 완료되는 등 법인 설립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8월 중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6월 투자협약을 맺은 34개 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이사회 결정 등 내부 절차를 마무리하고 투자금을 입금하고 있다.

시는 이번 주 내로 투자금 입금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주주 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어 발기인 총회를 열어 합작법인 명칭과 대표이사를 선정하고 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명칭은 다수의 후보군을 선정하고 시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대표이사는 각계의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사들을 대상으로 검증작업을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8월 중 합작법인을 출범시키고 올해 말 공장 착공, 2021년 완공·양산체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6일 기자 간담회에서 합작법인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 "자동차 산업을 잘 알고, 관리능력이 있고 중앙부처와 협력을 잘 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라며 "노사민정 사회대통합형일자리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노사민정을 잘 아우를 수 있거나 중앙부처 경력을 가진 사람 등 4가지 기준에서 고르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금융기관 3곳, 기업 29곳 등이 합작법인에 2천300여억원을 투자한다. 광주시는 신설법인의 자기자본금 2천300억원의 21%인 483억원, 현대차는 19%인 437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투자자를 모집해 마련했다.

총 5천754억원의 법인 자본금 중 자기자본금 2천3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 3천454억원은 재무적 투자자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타 금융권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설립사업은 합작법인이 빛그린산단에 연 10만대 규모의 생산라인을 구축해 경형 스포츠 유틸리티차량(SUV)을 현대차로부터 위탁받아 생산하고, 정규직 1천여명을 고용하는 내용이다. /김다이 기자

# 광주시, 공공형어린이집 2곳 신규 선정

광주시는 공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2곳을 추가로 선정한다.

시는 현재 공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95곳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신규 선정은 광주시 내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 A등급 이상 정원 충족률 80% 이상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개방성과 운영 안정성 등 3개 분야를 심사해 선정할 예정이다.

오는 20일까지 보육통합지원시스템에서 접수하며,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등 심사를 거쳐 9월말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공공형어린이집에 선정되면 어린이집 교사, 반수, 아동 현원 등을 반영해 보육교사 급여, 교육환경 개선비 등 운영비를 지원을 받고, 이에 상응해 보육교사의 인건비는 국공립 1호봉 수준 및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와 동일하게 수납하게 된다.

시는 공보육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24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확보해 국공립 전환을 추진 중이다. /최권범 기자

CMYK